

4. 탄력 밴드 저항해서 무릎 펴기



5. 탄력밴드 당기면서 팔 들어올리기



6. 수건잡고 팔 들어올리기



7. 탄력밴드 잡고 대각선으로 팔 들어올리기



활동사진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비교

Comparison of nurse's Image,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by the Grade.

김은희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황은영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김채영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이민서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이지민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모예진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이휘정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최지수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김민정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김다혜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장준범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김한별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고영혜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지도교수				

초 록

논문 초록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을 비교·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전공과 직업에 대한 인식은 학업경험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전공과 직업에 대한 학년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간호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둔다.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 학생 총 19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모두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점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학년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학년별 교과과정 운영 방법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전문직관 형성을 위해 간호근무환경과 조직구조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접근하고 학년별로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첨단화된 기술로 보건의료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소비자의 권리 의식 및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간호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과 전문화의 요구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은 미래간호사로서 전문직 역할 수행을 위한 실무역량 함양과 함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해야 한다[1].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의 체계화된 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 활동 및 직업적 의식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2].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은 간호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간호 활동에 대해 간호사가 만족함과 동시에 직업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은 대중으로부터 간호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데 필수적이며, 확고히 확립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

사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과 본인의 업무에 대한 가치와 진료 분야의 전문성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3].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호사 자신이 간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뿐 아니라 의사, 환자, 보호자 등이 간호사와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 갖게 되는 느낌을 의미한다[4].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환자 만족도 및 간호사의 긍지와 업무수행뿐 아니라[5], 간호의 본질을 반영하여 간호에 대한 정책결정, 직무만족, 학생들의 진로결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 이미지를 숙련된 전문 기술과 지식을 소유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직업에 대해 전문직으로서 높은 긍지를 가진 긍정적인 직업군으로 인식하는 한편, 대중적인 간호사의 이미지는 여전히 자율성과 독자성이 부족한 역할을 수행하고, 힘이 드는 고된 직업이며,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공존하고 있다[7-9].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전문직관이 확고히 확립되지 않은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10].

한편, 전공만족이란 인지, 감정들의 복합체로서 전공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경험을 의미한다[11].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져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기여한다[12].

이를 종합해보면, 미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전문직업관 형성에 있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중요한 변인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13],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14] 등이 있다. 그러나 주로 간호대학생의 인식수준을 조사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이 학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간에 따른 역동적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Kloster 등[15]의 연구에 근거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과 직업에 대한 인식은 학업경험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전공과 직업에 대한 학년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년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을 비교하여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전문직업관 함양을 위한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차이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을 비교하여 올바른 전문직관 형성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표출하였다. 자료수집 전에 연구보조원 1인을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후 연구보조원이 각 학년별 단체 SNS에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설문 목적과 소요 예상 시간, 답례품 등)를 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학생을 학년별로 50명 모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설문 응답시간은 10분가량 소요되었다. 표본크기는 Cohen [16]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G*Power 3.1.9.4를 이용하여 일원분류 분산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Hwang 등 [13]의 연구에 근거하여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beta$) 0.8, 효과크기(f) .25(medium)으로 산출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그룹별로 45명으로 총 180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부의 표본수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총 20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한 196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 도구

1)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는 Song[17]가 개발한 도구를 Kim[18]이 수정·보완하여 만든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며,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늘 바쁘게 일한다’,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의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2개의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Kim[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3이었다.

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Ha 등[11]이 개발한 34개 문항의 학과 만족 도구 중 Lee[19]가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 관련 문항으로 수정·보완한 ‘전공만족도’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의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2였다.

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oon 등[20]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전문성, 간호실무속성, 간호의 독자성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총점 25점~125점 범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는 의료체계 내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등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3개의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Yoon 등[20]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8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 2) 학년별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 Dunnett T3로 분석하였다.
- 3) 연구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자료수집 시 연구의 목적, 설문 소요시간, 익명성 보장에 대해 충분

히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며 언제든지 본인의 의지로 설문을 중단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사전 동의서를 통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196명 연구참여자 중 4학년이 55(2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 51(26.0%)명, '1학년' 46(23.5%)명, '3학년' 44(22.4%)명 순이었다.

전체 학년에서 24세 이하의 대상자가 약 70.0%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학년에서 29세 이상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1,3,4학년에서 여성이 85.0% 이상, 2학년에서 68.6%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0.86, p=.013$).

임상실습 경험여부는 1,2학년에서 '없음'이 95.0% 이상으로 대부분인 반면, 3,4학년에서는 '있음'이 93.0% 이상으로 나타나 학년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61.86, p<.001$). 1,2학년의 임상실습 횟수는 대부분 전무하였으며, 3학년의 임상실습 횟수는 3회 이하가 88.7%, 4학년은 4회 이상이 83.6%로 나타났으며, 학년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chi^2=290.98, p<.001$).

졸업 후 계획과 10년 후 목표는 전체 학년에서 '임상간호사'가 각각 약 80.0%, 약 50.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주관적 건강상태 또한 전체 학년에서 ' 좋음'이 55.0% 이상, '중간'은 30.0% 이상으로 나타나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비교와 차이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간호사이미지는 평균 5점 만점에 2학년 4.17±0.38점, 1학년 4.14±0.36점, 3학년 3.97±0.43점, 4학년 3.96±0.46점 순으로 높았으며,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39, p=.019$).

전공만족도는 평균 5점 만점에 1학년 4.37±0.46점, 2학년 4.33±0.47점, 3학년 4.15±0.67점, 4학년 4.05±0.6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34, p=.020$), 사후분석 결과, 1학년이 4학년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하위영역별 총 평균점수는 '인식만족'이 4.53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과만족'이 3.8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인식만족의 평균점수는 1학년이 4.75점으로 가장 높고, 4학년이 4.3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1학년과 4학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79, p<.001$).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5점 만점에 1학년 4.11±0.42점, 2학년 4.08±0.46점, 4학년 3.86±0.50점, 3학년 3.83±0.5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26, p=.006$). 사후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은 1학년이 3, 4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별 총 평균점수는 '간호실무숙성'이 4.35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의 독자성'이 2.93점으로 가장 낮았다. 간호전문직관의 5개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 전문직 자아개념($F=5.26, p=.002$), 간호전문성($F=3.71, p=.012$), 간호실무숙성($F=3.95, p=.009$)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1학년이 4학년보다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3학년보다 간호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실무숙성에 대한 인식은 1학년이 3, 4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96)

Items	Categories	Grade				χ^2	<i>p</i>
		Freshmen (n=46)	Sophomore (n=51)	Junior (n=44)	Senior (n=55)		
		n (%)	n (%)	n (%)	n (%)		
Age	≤24	39 (84.8%)	42 (82.4%)	37 (84.1%)	38 (69.1%)	14.83	.251
	25-28	5 (10.9%)	6 (11.8%)	3 (6.8%)	13 (23.7%)		
	29≤	2 (4.3%)	3 (5.0%)	4 (9.1%)	4 (7.2%)		
Gender	Male	4 (8.7%)	16 (31.4%)	6 (13.6%)	7 (12.7%)	10.86	.013
	Female	42 (91.3%)	35 (68.6%)	38 (86.4%)	48 (87.3%)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um	Yes	1 (2.2%)	2 (3.9%)	41 (93.2%)	52 (94.5%)	161.86	<.001
	No	45 (97.8%)	49 (96.1%)	3 (6.8%)	3 (5.5%)		
Number of clinical practicum experience	None	45 (97.8%)	49 (96.1%)	3 (6.8%)	3 (5.5%)	290.98	<.001
	≤1	0 (0.0%)	1 (2.0%)	27 (61.4%)	1 (1.8%)		
	2-3	1 (2.2%)	0 (0.0%)	12 (27.3%)	5 (9.1%)		
	4-5	0 (0.0%)	0 (0.0%)	0 (0.0%)	11 (20.0%)		
	6 ≤	0 (0.0%)	1 (2.0%)	2 (4.5%)	35 (63.6%)		
Plan after graduation	Clinical nurse	42 (91.3%)	48 (94.1%)	36 (81.8%)	52 (94.5%)	6.70	.350
	Public health nurse	2 (4.3%)	1 (2.0%)	5 (11.4%)	2 (3.6%)		
	Others (professor, ect)	2 (4.3%)	2 (3.9%)	3 (6.8%)	1 (1.8%)		
Goals in 10 years	Clinical nurse	23 (50.0%)	29 (56.9%)	21 (47.7%)	35 (63.6%)	12.01	.445
	Public health nurse	10 (21.7%)	11 (21.6%)	8 (18.2%)	8 (14.5%)		
	Professor	1 (2.2%)	3 (5.9%)	3 (6.8%)	0 (0.0%)		
	Occupational health nurse	4 (8.7%)	3 (5.9%)	7 (15.9%)	8 (14.8%)		
	Other (school health teacher, ect)	8 (17.4%)	5 (9.8%)	5 (11.4%)	4 (7.3%)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29 (63.0%)	29 (56.9%)	25 (56.8%)	32 (58.2%)	.052	.058
	Average	14 (30.4%)	20 (39.2%)	16 (36.4%)	17 (30.9%)		
	Bad	3 (6.5%)	2 (3.9%)	3 (6.8%)	6 (10.9%)		

<Table 2> Differences in nurse image,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by grade level (N=196)

Variables	Total (n=196) M±SD	Grade				F	p Scheffé
		Freshmen (n=46) M±SD	Sophomo re (n=51) M±SD	Junior (n=44) M±SD	Senior (n=55) M±SD		
Nurse image	4.06±0.42	4.14±0.36	4.17±0.38	3.97±0.43	3.96±0.46	3.39	.019
Major satisfaction	4.22±0.59	4.37±0.46 ^a	4.33±0.47 ^b	4.15±0.67 ^c	4.05±0.69 ^d	3.34	.020* a>d
General satisfaction	4.46±0.48	4.47±0.43	4.60±0.43	4.41±0.50	4.36±0.51	2.55	.057
Perception satisfaction	4.53±0.57	4.75±0.36 ^a	4.62±0.47 ^b	4.45±0.68 ^c	4.32±0.62 ^d	5.79	<.001* ^{a>d}
Subject Satisfaction	3.87±0.82	3.88±0.78	3.97±0.75	3.83±0.83	3.79±0.92	0.43	.725
Relationship satisfaction	3.96±0.91	3.95±0.91	4.03±0.93	4.04±0.85	3.85±0.95	0.46	.711
Nursing professionalism	3.97±0.49	4.11±0.42 ^a	4.08±0.46 ^b	3.83±0.53 ^c	3.86±0.50 ^d	4.26	.006 a>c,d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28±0.60	4.47±0.49 ^a	4.43±0.56 ^b	4.16±0.63 ^c	4.09±0.64 ^d	5.26	.002 a>d
Social awareness	3.84±0.72	3.84±0.76	4.01±0.68	3.63±0.75	3.85±0.68	2.23	.085
Professionalism of nursing	4.23±0.56	4.430.45 ^a	4.25±0.53 ^b	4.06±0.58 ^c	4.19±0.61 ^d	3.71	.012 a>c
Roles of nursing service	4.35±0.62	4.54±0.48 ^a	4.47±0.61 ^b	4.19±0.69 ^c	4.22±0.64 ^d	3.95	.009 a>c,d
Autonomy of nursing	2.93±1.08	3.15±0.12	2.83±0.10	3.03±1.00	2.74±1.09	1.49	.218

*Dunnett test

3.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이미지($r=.72, p<.001$), 전공만족도($r=.62, p<.001$)와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이미지는 전공만족도와 중간 수준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56, p<.001$).

<Table 3> Correlation of nurse image,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96)

Variables	Nurse image r(p)	Major satisfaction r(p)	Nursing professionalism r(p)
Nurse image	1		
Major satisfaction	.56(<.001)	1	
Nursing professionalism	.72(<.001)	.62(<.001)	1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학년별 전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5점 만점에 3.97점이었으며, 1학년 4.11점, 2학년 4.08점, 3학년 3.83점, 4학년 3.86점으로 1,2학년보다 3,4학년에 유의하게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조사한 Choi 등[7]의 연구에서도 3,4학년이 1,2학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간호학과 교육과정의 특성상 1,2학년 학생들은 주로 해부학, 생리학 등 기초 교과목을 배우게 되며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등의 전공교과목이나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간호전문성에 대한 개념이나 역할, 인식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13]. 간호전문직관은 전공 이론과 실습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21], 학년이 높아질수록 간호전문직관이 감소된 본 연구결과는 간호학과 교육과정의 운영의 재고와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 중 간호실무속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호실무속성은 간호사는 환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전문인다운 자질을 보여준다는 문항으로 간호대학생으로서 바라보는 간호사는 환자중심간호를 실천하는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의 독자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의 독자성이란 의료체계 내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병원의 현실을 실제로 마주하게 되면서, 특히 예기치 못한 환자의 반응을 경험하거나 학생간호사로서 활력징후 측정, 환자이송 등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느낀 현실의 장벽에서 기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4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간호전문직관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직관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20]. 학년이 올라갈수록 간호전문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역동을 형성하기 위해, 학년별로 교과과정을 통해 다양한 환자사례를 접해볼 기회를 마련하고 실습기관 및 실습학생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간호의 독자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영향이 높은 변수는 간호사이미지로 나타났다[22].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는 평균 5점 만점에 4.06점이었으며, 1학년 4.14점, 2학년 4.17점, 3학년 3.97점, 4학년 3.96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를 조사한 Seo [23]의 연구에서 평균 4.01점과 유사한 결과였으나, Jo 등[14]의 연구에서는 1학년 3.96점, 2학년 3.61점, 3학년 3.83점, 4학년 4.03점으로 1, 4학년이, 2, 3학년보다 긍정적으로 높아 본 연구결과와 다소 상이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자의 소속된 간호학과 교육과정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면서 간호전문직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13]. 본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가 1학년, 2학년에 비해 3학년, 4학년이 간호사이미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간호사이미지와 함께 간호전문직관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 시 마주한 현장은 학교에서 이론과 교내실습을 진행하며 배웠던 지식과 달리 차이가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임상현장은 환자의 권리가 중요시되면서 간호사는 환자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의료진 간의 갈등 및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은 현재 보건의료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남아있다[24]. 이에 임상현장을 직접 경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이 실제 임상을 경험하면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다소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25].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간호사이미지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간호사 자신의 이미지를 알고 전문인다운 태도로 간호에 임할 필요가 있으며, 임상실습 시 간호대학생에게 전문적이고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실습기관

자체의 교육 등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근무환경과 조직구조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전공만족도의 경우 평균 5점 만점에 4.23점으로, 1학년 4.37점, 2학년 4.33점, 3학년 4.15점, 4학년 4.05점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긍정적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조사한 Hwang 등[13]의 연구에서 3.88점, Seo [23]의 연구의 3.81점보다 모든 학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유의성 본 연구에서 또한 타 전공 대학생에 비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 특히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인식만족은 1학년이 4학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인식만족은 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른 만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학과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와 같은 전공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27]. 본 연구의 결과는 처음 입학할 당시 졸업 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된다는 기대와 달리, 4학년은 취업을 앞두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며, 그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생각과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인식만족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2]. 또한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의 하위영역별 총 평균점수는 교과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의 교육과정 특성상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으로 인한 학습에 대한 부담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공만족을 높이기 위해 3, 4학년에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목을 1, 2학년에 분산하는 등 간호학의 교과과정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교수자와 학습자의 꾸준한 의사소통과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전공만족도가 낮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기부여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담당교수와의 상담 및 지지 등이 필요할 수 있겠다[23].

위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이 학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간에 따른 역동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개인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의 간호대학생들의 결과라고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추후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학년에 따른 역동적인 변화를 본 국내에서는 최초의 논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학년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학년별 교과과정 운영 방법과 간호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의 시사점을 돕으로써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을 비교하여 올바른 전문직관 형성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전국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상으로 총 196명이 참여하였고, 자료수집은 2022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이미지($r=.72, p<.001$), 전공만족도($r=.62, p<.001$)와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는 중간수준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56, p<.001$).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학생들의 특성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점수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3, 4학년이 되어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병원의 현실을 실제로 마주하게 되면서, 특히 예기치 못한 환자의 반응을 경험하거나 학생간호사로서 활력징후 측정, 환자이송 등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느낀 현실의 장벽에서 기인한 것임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학년별로 학내 교과과정을 통해 다양한 환자사례를 접해볼 기회를 마련하고 실습기관 및 실습학생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상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를 늘리는 것이 요구된다.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의 향상은 간호전문직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사